

西周 한어의 “以”자문*

- 《尚書》와 金文을 중심으로 -

허웨이** · 장태원***

<目次>

I. 머리말	1. “以+빈어+V+O” 구문
1. 학자들의 殷·周시기 “以”자 연구	2. “……, 以+V+O” 구문
2. 텍스트와 역문 자료의 근거	3. “V+(O)+以+빈어” 구문
II. 《尚書》와 金文에 보이는 “以”자문	III. 결론

I. 머리말

1. 학자들의 殷·周시기 “以”자 연구

“以”자는 殷代の 甲骨文에 𠄎 나 𠄎로 쓴다. 裘錫圭는 𠄎의 원의는 “提携”·“攜帶”이고, “致送”의 의미로도 말할 수 있다고 했고, 아울러 𠄎와 𠄎는 한 단어의 다른 서사방식이라고 여겼다.¹⁾ 西周的 金文에서는 보통 𠄎로 쓰는데, 《說文解字》에 수록된 “目”자이다.²⁾ “以”자는 殷代の 甲骨文

* BK 플러스 사업지원으로 작성했음.

** 경북대학교 중문과 박사과정(제1저자)

*** 경북대학교 중문과 교수(교신저자)

1) 裘錫圭, <說“以”>, 《古文字論集》, 中華書局, 1992, 106-107쪽.

2) 香港中文大學의 《漢語多功能字庫》 사이트에서는 최초로 나타난 “以”자를 다

에서 주로 동사로 쓰였다³⁾.

西周 이후 “以”자에서 또 여러 가지 의미가 파생되어 나왔다. 崔永东은 《西周金文虚词集释》에서 “以”자의 의미에는 “與”·“把”·“率领”·“已” 등과 같은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⁴⁾. 顾頡刚·刘起鈞는 《尚书校释译论》에서 “以”자는 “率领”, “凭借”·“利用”, “由于”·“因此” 등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⁵⁾.

품사 유형의 측면에서 崔永东은 “以”자는 네 가지 유형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把”나 “率领”의 의미 일 때는 개사이고, “與”의 의미 일 때는 개사와 접속사 두 유형을 포함하고, “已”의 의미일 때는 부사이며, “东”·“西”·“南”·“北” 등의 방위사와 이어져 쓰일 때는 조사라고 여겼다. 반면 郭锡良은 “以+빈어”가 다른 동사 앞이나 뒤에 쓰일 때 “以”자는 개사이고, “以”자 뒤에 술빈구조(述宾结构)를 수반하고 전체가 다른 동사나 술빈구조 뒤에 나타나면 접속사라고 여겼다⁶⁾. 钱宗武는 《今文尚书语法研究》에서 “以”자를 개사·접속사·동사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즉 “以+빈어”가 다른 동사 앞에 쓰여 상황어가 되고 이때 “以”자가 “用”·“根据”·“因”·“从”·“率领”·“與”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以+빈어”가 다른 동사 뒤에 쓰여 보어가 되고 이때 “以”자가 “用”·“根据” 등의 의미를 나타내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甲骨文은 “人”과 “◎”에서 기원하는데(从“人”从“◎”), 사람이 손으로 물건을 들고 있는 모양과 같다. 처음의 의미는 持携·提挈(张世超·季旭昇)이다. 후에 사람 “人”이 생략되어 들고 있는 물건의 모양으로 간화되었다. “◎”는 隶书에서 “目”로 되었다. …… 金文 《牧簋》의 “以”자는 “◎” 옆에 사람 “人”의 모양을 더해 위로 甲骨文을 계승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楷书 “以”자 자형의 근거가 된다. “以”는 후에 虚詞로 차용된다. 《说文解字》는 “目는 用의 의미이다. 거꾸로 쓴 巳자에 기원한다(目, 用也. 从反巳). 賈侍中은 ‘巳는 이미 실현되었다라는 의미이고, 형상을 본뜬 것이다(巳, 意巳實也. 象形).’라고 하였다.” ……甲骨文에서는 率领을 의미하면서, ……致送을 나타내기도 한다.

- 3) 郭锡良, <介词“以”的起源和发展>, 《古汉语研究》, 1998年 第1期.
- 4) 崔永东, 《西周金文虚词集释》, 中华书局, 1994, 16-17쪽.
- 5) 顾頡刚·刘起鈞, 《尚书校释译论》, 中华书局, 2005.
- 6) 郭锡良, <介词“以”的起源和发展>, 《古汉语研究》, 1998年 第1期.

는 경우, “以”자 뒤에 빈어를 생략하여 다른 동사와 연이어 사용되면서 “以”자가 여전히 “用”·“根据”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모두 개사이다. “以”자 뒤에 빈어를 생략하여 “以”자가 “凭借”·“與” 등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접속사이다. 일부 “以+빈어”는 다른 동사 앞에 나타나는데 이때 “以”자가 “率领”의 의미를 나타내면 동사이다.⁷⁾

2. 텍스트와 역문 자료의 근거

I.1에서 殷代와 西周의 “以”자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본문에서는 西周 시기에 나온 《尚书》 각 편과 西周 金文을 대상으로 西周 시기 “以”자의 용법을 문장구조 형식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以”자의 각 어휘적인 의미와 품사 유형이 출현한 시기를 분석한다.

《尚书》의 가장 이른 판본은 刘宋 때의 伪《孔传古文尚书》이다. 이 책은 唐代에 편집을 거쳐 총 58편을 수록하였다. 清代 사람 阎若璩의 고증으로 이중 33편이 진짜 古文이고, 나머지 25편은 위작으로 판명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33편을 28편으로 합쳐서 《尚书》를 연구하고 주석을 단다. 이 28편은 아래와 같다:

虞夏书 : <尧典>·<皋陶谟>·<禹贡>·<甘誓>
 商书 : <汤誓>·<盘庚>·<高宗彤日>·<西伯戡黎>·<微子>
 周书 : <牧誓>·<洪范>·<金縢>·<大诰>·<康诰>·<酒诰>·<梓材>·<召诰>·
 <洛诰>·<多士>·<无逸>·<君奭>·<多方>·<立政>·<顾命>·<吕刑>·
 <文侯之命>·<费誓>·<秦誓>

이 28편의 창작시기에 관해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제기하였다. 张玉金은 여러 학자들의 설을 종합하여 <大诰>·<康诰>·<酒诰>·<梓材>·<召诰>·

7) 钱宗武, 《今文尚书语法研究》, 商务印书馆, 2004, 185-189쪽, 250-252쪽, 223쪽.

<洛誥>·<多士>·<无逸>·<君奭>·<多方>·<立政>·<顾命>·<费誓>·<吕刑> 등 14편을 西周 한어 문법을 연구하는 텍스트로 열거하였다.⁸⁾ 夏传才是 <无逸>·<君奭>·<顾命>·<费誓> 등은 기본적으로 1차 자료이나 문자가 春秋战国 시기에 가공을 거쳤다고 여겼다.⁹⁾ 본 논문은 이 두 사람의 논술을 토대로 <大诰>·<康诰>·<酒诰>·<梓材>·<召诰>·<洛诰>·<多士>·<多方>·<立政>·<吕刑> 등의 편을 본문의 《尚书》 텍스트로 삼았다. 아래에서 언급하는 《尚书》의 문장은 모두 이 10편에서 인용한 것이다.

《尚书》 텍스트와 역문은 曾乾运의 《尚书正读》, 周秉钧의 《尚书易解》, 顾颉刚, 刘起釞의 《尚书校释译论》를 참고했다.

본문이 선택한 《尚书》각 편은 학자들이 西周 시기에 지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후세에 수정한 흔적이 없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尚书》에 보이는 “以”자의 용법을 고찰하고 이들 용법이 西周 시기 확실히 존재하였는지를 증명하려면 西周 金文(이하 “金文”)에 기록된 문헌 기록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문의 金文 텍스트는 주로 陈梦家的 《西周铜器断代》, 杨树达의 《积微居金文说》과 台湾中央研究院历史语言研究所(이하 “台湾中研院史语所”라고 함)의 《先秦甲骨金文简牍词汇资料库》(이하 “《资料库》”라고 함)에 수록된 西周 金文자료에서 발췌하였다.

《西周铜器断代》와 《积微居金文说》의 金文 텍스트와 역문은 陈梦家和 杨树达의 주석에 근거했다. 台湾中研院史语所的 《资料库》 金文 텍스트와 《西周铜器断代》·《积微居金文说》에 주석이 없는 텍스트는 본문이 대부분 清华大学出土文献研究与保护中心和 复旦大学出土文献与古文字研究中心 두 사이트에서 발표된 논문을 참고하였다.

春秋战国 시기의 텍스트와 역문은 杨伯峻의 《论语译注》와 《孟子译释》을 참고했다.

8) 张玉金, 《西周汉语语法研究》, 商务印书馆, 2004, 7쪽.

9) 夏传才, 《十三经概论》, 天津人民出版社, 1998, 108쪽.

II. 《尚书》와 金文에 보이는 “以”자문

《尚书》와 金文의 “以”자문은 대체로 아래 네 가지 문형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문장에서 술어가 되어 빈어를 하나 수반하거나 빈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1. 王其效邦君，越御事，厥命曷以。《尚书·梓材》
임금은 각 제후국의 왕과 일을 처리하는 대신들은 물론 그의 명이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2. 唯俘車不克以，衣焚。 西晚 《多友鼎》
획득한 수레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태워버렸다.

이 두 예문의 “以”자는 모두 “用”의 의미이다. 예문2의 《多友鼎》은 서주 말기의 靑銅器 銘文이다. <梓材>는 보통 西周 초기의 작품으로 보나 예문1의 “以”자 용법은 본문이 선택한 다른 《尚书》편명에는 보이지 않고 春秋战国 시기의 작품 중에 비슷한 용법을 찾을 수 있다:

3. 如或知尔，则何以哉？《论语·先进》
만일 누군가가 너희들을 알아준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나?
4. 我辞礼矣，彼则以之。《左传·襄公十年》
우리는 예로써 사절했으니 저들은 그것을 계속 쓸 것입니다.

위의 두 예문에 보이는 “以”자도 “用”의 의미로, 예문1과 예문2의 용법과 비슷하다. 아래 II.2에서 “以”자가 “率领”의 의미에서 “凭借”의 의미로 그리고 다시 “用”의 의미로 변화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상술한 네 가지 예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以”자가 “用”의 의미를 나타내어 문장에서 술어가 되는 경우는 비교적 늦게 출현한다. 둘째, “以”자가 “用”의 의미를 파생시킨 후에도 계속 동사의 용법을

가지며 문장에서는 여전히 독립적으로 술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以”자가 단독적으로 문장에서 술어가 되는 용법은 《尚書》와 金文에서는 보기 드문 문법현상이다. 이 때문에 본문에서는 뒤의 세 가지 문형을 주로 분석한다. 설명의 편리를 위해 “以”자와 연이어 사용되는 동사를 “V”로 표기하고, 이 동사의 빈어를 “O”로 표기한다. “以”자가 빈어를 수반하면 “以+빈어”로 표기한다. 이 세 가지 구문은 다음과 같다: ① 以+빈어+V+O, ② ……., 以+V+O, ③ V+O+以+빈어. 아래에서 나누어 설명한다.

1. “以+빈어+V+O” 구문

이 구문은 《尚書》와 金文中에서 가장 많이 보인다. 본문에서 선택한 《尚書》 각 편에는 총 20차례의 예가 보이고, 《西周銅器斷代》에 수록된 金文에는 23차례의 예가 보인다. “以”자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의미들은 대부분 이 구문에서 나왔다. 예로:

5. 予惟以尔庶邦于伐殷逋播臣。 《尚書·大誥》

집은 그대들 제후들을 이끌고 저 반란을 일으킨 은나라의 도당을 정벌하러 갈 것이요.

6. 白懋父以殷八師征東夷。 西周 《小臣 簋》

白懋父는 殷나라의 八師를 이끌고 동쪽의 이민족을 정벌했다.

두 예문에서 “以”자는 모두 “率領”의 의미를 나타낸다. “以”자가 “率領”의 의미를 나타낼 때 “以+빈어+V+O”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빈어는 대부분 많은 인원수를 나타내는 집합명사(集合名詞)이거나 명사구이고, “以”자 뒤의 동사 V는 전쟁과 관련 있다. 이때, “以”자는 “率領”의 의미가 두드러진다. “以”자의 빈어와 뒤쪽의 동사 V가 변할 때, “以”자의 “率領” 의미도 따라 변한다. 예로:

7. 公其以予万亿年敬天之休。 《尚书·洛诰》
공께서는 제가 하늘이 내린 복을 영원히 공경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오.
8. 大以厥友守。 西中 《大鼎》
大는 그의 동료와 궁을 지켰다.
9. 王乎膳夫 𠄎 召大以厥友入孜。 西中 《大鼎》
임금은 요리사 𠄎 을 시켜 大와 그의 동료들이 궁에서 호위 임무를 담당할 것을 명하도록 했다.

이 예문들에서 “以”자가 수반한 빈어는 모두 “人物”을 나타내는 단수명사이고, “以”자 뒤의 동사도 “非战争”의 의미를 갖고 있다. 문장의 구조성분으로 보면, 이 예문들은 “率领”의 의미를 나타내는 “以”자의 용법과 흡사한데, “以”자 앞과 뒤는 모두 人物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以”자는 “率领”의 의미로 풀이할 수 없지만 “以”자 앞과 뒤에 있는 人物은 여전히 주객 관계를 갖고 있다. 즉 “以”자 앞의 명사는 동작의 주요 집행자이고, 뒤의 명사는 협동자이다.¹⁰⁾ 이 “以”자의 용법은 분명히 “率领”의 의미에서 파생되어 나왔다. 이 “以”자를 “率领”의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지만 문장에서는 “率领”의 의미가 이미 약화되어, “偕同”이나 “连同”의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偕同”과 “连同”의 의미가 더욱 虚化된 후에는 “和”나 “与”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밖에 “以”자의 “率领” 의미에서 “凭借”의 의미도 파생되어 나왔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以”의 빈어와 뒤쪽의 동사 V의 변화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10) 陈梦家是“(‘大以厥友守’와 ‘大以厥友入孜’)는 그 동료와 虎臣들이 왕궁을 지키고 왕을 수호했다…… 大라고 한 사람의 직위는 虎臣의 수장인 ‘师’이다(以其僚友虎臣之属守宫, 孜敌王身……. 大之职當是虎臣之长之‘师’)”라고 말했다. 이로 보면, 예문8·9의 “大”는 “厥友”에게 주도역할을 한다. 예문7의 내용은 周公이 주관해 洛邑을 준공한 후에 成王이 주공에게 감사를 나타내는 말이다, “公”은 이 문장에서 주요인물이다. (陈梦家, 《西周铜器断代》, 中华书局, 2004, 257쪽.)

10. 太保乃以庶殷攻位于洛汭。《尚书·召诰》

太保는 殷의 유민들을 데리고 낙수와 황하가 만나는 곳에서 건물이 들어설 자리를 측량했다.

11. 汝乃以殷民世享。《尚书·康诰》

그대는 殷나라 유민들을 의지해 대대로 복을 누릴 것이오.

예문10에서 “以”자의 빈어는 “庶殷”이고, “以”자 뒤쪽의 동사 “攻”은 “战争”류 동사로도 볼 수도 있고, “非战争”류 동사로도 볼 수 있다. 때문에 이곳의 “以”자는 “率领”이나 “凭借”로 해석해도 말이 통한다. 예문11의 “以”자의 빈어 “殷民”은 예문10의 “庶殷”과 같다. “享”은 “享有”·“享受”의 의미로 “非战争”류 동사이기 때문에 “以”자를 “率领”으로 해석하면 상·하문의 의미가 맞지 않기 때문에 “凭借”의 의미로 보는 것이 좋다. 이 두 예문에서 “以”자의 의미변화는 뒤쪽 동사의 영향을 받는다. 이외에 “以”자의 의미변화는 수반하는 빈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예로:

12. 汝以我車宕伐玃狁于高陶。西晚《不其簋》

그대는 우리의 병거에 의거하여 고도에서 험윤을 쳐주시오.

“伐”은 “战争”류 동사로, 앞의 예문5·6과 같다. “車”은 “事物”류 빈어이다. 여기서 “以”자를 “率领”의 의미로 본다면 문장의 의미와 맞지 않기 때문에 “凭借”의 의미로 봐야한다. “以”자의 의미변화는 “以”자의 빈어의 영향을 받는다.

또 일부 “以+빈어+V+O” 구문의 용례에서도 “凭借”의 의미를 가진 “以”가 있다. 그러나 《尚书》와 金文에는 용법상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13. 记功宗, 以功作元祀。《尚书·洛诰》

종묘에 제사지낼 때 공이 있는 자를 종묘에 고향 것이다.

14. 夫知保抱携持厥妇子，以哀吁天，徂厥亡出执。《尚书·召诰》
가정이 있는 남자들은 처와 자식을 업고 안고 끌며 부축하면서, 하늘
에 통곡하며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주왕이 망하기를 저주하며 어려움
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두 예문은 모두 《尚书》에 보인다. “以” 뒤쪽은 “事物” 빈어이고,
“以” 뒤쪽 동사는 “非战争”류 동사이다. “以” 뒤쪽의 이런 빈어는 “非人
物”류 빈어이면서 “以” 뒤쪽의 동사는 또한 “非战争”류 용법이다. 金文에
서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없다. 金文에는 다음과 같은 용법이 있다:

15. 以匡季告東宮。 西中 《召鼎》
꺠이라는 사람이 광계를 동궁에 알렸다.
16. 虢仲以王南征。 西晚 《虢仲盨蓋》
虢仲은 왕명에 따라 남방의 이민족을 정벌했다.

“以”자 뒤쪽은 여전히 “人物”류 빈어이고, “以”자 뒤쪽의 동사도 여전히
“非战争”류의 동사이다. 문장 구조로 보면, 다른 “凭借”의 의미를 나타내
는 “以+빈어+V+O”의 용례와 별 차이가 없다. 문장 전체의 의미로 보
면, “以”자 뒤쪽의 빈어가 나타내는 것은 어떤 “의거한” 일이다. 예문15의
“匡季”는 원래 사람이름으로, 이곳에서는 “匡季”와 연관된 일을 가리킨다.
즉, “이 일을 東宮에 알렸다.”는 것이다. 예문16의 “王”은 “왕 자신이” 아
닌 왕과 연관된 일인 “王命”¹¹⁾, 즉 “虢仲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남쪽을

11) 어떤 학자는 이 구를 “임금을 따라 남쪽으로 정벌하러 갔다(虢仲跟随王南征)”
로 보고, “以”자를 “따르다(跟随)”의 의미로 보았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다음
과 같은 이유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첫째, 위 문장의 분석에 따르면, “以”자
전후로 연결되는 인물은 보통 주객의 구분이 있다. “以”자 앞의 인물이 중심
이고, “以”자 뒤의 인물은 보조하는 부차인물이다. 그런데 이 예문은 부차인물
이 앞에 있어 “以”의 일반적인 용법에 맞지 않는다. 둘째, 서주 중기의 《班簋》
(集成, 04341)에는 “以乃族從父征(그대 종족의 장사들을 이끌고 부친을 따라
출정하라).”라는 명문과 서주 중기의 《遇鬲》(集成, 00948)에는 “師雍父
成, 在古次, 遇從(사옹의 부친이 고차에서 변방을 지키게 되자, 遇가 따라

정벌했다.”를 가리킨다.

이로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金文에서는 “어떤 사물에 근거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여전히 “어떤 인물”을 빌려 “어떤 사물”을 가리키며, “以” 뒤쪽은 “人物”류 빈어를 주로 수반한다. 이것은 《尚书》에서 “以” 뒤쪽에 “事物”류 빈어를 수반하고 아울러 “非战争”류 동사가 이어져 사용되는 표현방식과 차이가 있다.

刘起釪는 《尚书·多方》의 “乃惟以尔多方之义民, 不克永于多享(그대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기용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오랫동안 풍성한 제사를 받을 수 없었소).”에 나오는 “以”자를 “因”으로 해석했고, 杨树达도 《论语·卫灵公》의 “君子不以言举人, 不以人废言(군자는 말로 사람을 천거하지 않으며, 사람으로 그의 말을 버리지 않는다).”에 나오는 “以”자를 “因”으로 해석했다. 앞의 예문1-4에서의 “以”자는 “用”의 의미이다. “以”자의 이런 의미는 모두 “凭借”의 의미에서 파생되어 나왔다.

“以+빈어+V+O” 구문에서 “以”자의 의미 변화는 “以”자 뒤쪽 동사 V와 수반한 빈어의 영향으로 어떤 성분이 하나만 변해도 “以”자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다. “以”자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변화 과정을 거쳤다:

↗ 偕同 → 和、與¹²⁾

率领

↘ 凭借 → 用、因、把

함께 갔다.”라는 명문이 있다. 이 두 예문에서 “从”은 모두 “따르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로 보면, 예문15의 “以”는 “따르다”의 의미가 아닌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后汉书·东夷传》에는 “厉王無道, 淮夷人寇, 王命虢仲征之, 不克. 宣王复命召公伐之.”라는 기록이 있다. 금본(今本) 《竹书纪年》에도 “(厉王)三年, 淮夷侵洛, 王命虢公长父征之, 不克.”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여왕이 곽중에게 남정을 정벌하도록 명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12) 필자가 조사한 《尚书》와 서주 金文에는 “以”자가 “和”와 “与”의 의미를 가진 용법은 보이지 않았다. “和”와 “与”의 의미를 가진 용법은 春秋시기 이후에 출현하는 것 같다.

“以+빈어+V+O” 구문에서 “以”의 빈어와 동사V의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빈어 : “人物”류 집합명사 → “人物”류 단수명사 → “事物”류 명사

동사V : “战争”류 동사 → “非战争”류 동사

2. “……, 以+V+O” 구문

“……, 以+V+O” 구문은 “以” 뒤쪽에 빈어를 생략하는 표현방식이다. 본문에서 선택한 《尚书》 각 편에서는 총 13차례의 예가 보이고, 《西周铜器断代》에 수록된 金文에는 6차례의 예가 보인다. “以+V+O” 앞의 내용은 구조형식이 간단한 명사성 성분이나 동사성 성분도 있고 내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술빈구조나 단문(分句) 등도 있다. 본문에서는 이를 “……”로 표기한다.

(1) “……, 以+V+O” 구문의 유형

17. 民献有十夫予翼, 以于救宁、武图功。 《尚书·大诰》

근래 열 명의 어진 이들이 저를 보좌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문왕과 무왕께서 계획하신 공을 완성하러 갈 것입니다.

18. 越我一二邦以修我西土。 《尚书·康诰》

우방국들과 서쪽 땅을 경영하게 된 것이요.

19. 師旂眾僕不從王征于方雷, 使厥友引以告于伯懋父。 西中 《師旂鼎》

師旂 휘하의 많은 부하들이 방피를 치러 가지 않자, 그의 속관을 보내 이 일을 伯懋父에게 알렸다.

이런 표현 방식은 “……, 以+V+O” 구문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데,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以+V+O” 앞의 내용은 “以”자의 빈어로 볼 수도 있고, 내용 중에 “以”자의 빈어가 될 수 있는 성분을 포함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예문17의 “民獻有十夫予翼”은 하나의 단문으로, 이곳의 “十夫”는 “以”자의 빈어이다. 예문18의 “我一二邦”은 “以”자의 빈어로, 명사성 성분에 속한다. 예문19의 “師旂眾僕不從王征于方雷”는 전체가 “以”의 빈어로, 하나의 단문이다. 이 용법에서 “以” 뒤에 빈어를 생략하는 이유는 빈어가 앞 문장에 이미 나타나서 반복적인 서술을 피하기 위해서이다.¹³⁾

또한 “以+V+O” 앞의 내용은 “以”자의 빈어로 볼 수도 없고, 내용에도 “以”자의 빈어로 볼 수 있는 성분 없는 경우도 있다. 다만 앞의 내용에 따라 문장 의미에 감춰진 빈어를 채워 넣을 수 있다. 예로:

20. 用其义刑义杀, 勿庸以次汝封。 《尚书·康诰》

이치에 맞게 벌을 내리고 처형해야지, 봉 그대의 사사로운 마음을 따라서는 안 되오.

- 13) 郭锡良은 “‘以’자가 개사로 虚化된 후에 방위사·처소사 앞에도 쓰여, 공간·시간·수량의 한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면서, 아래의 金文을 예로 들었다:
履, 自灋涉, 以南, 至于大沽, 一封。《散氏盘》
땅의 경계를 둘러보려고 灋하에서 강을 건너 남쪽으로 가서 대고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봉토를 세워 경계로 삼았다.
“以” 뒤에 방위사·처소사를 수반한 경우는 《尚书》와 金文에서는 아주 드물게 보인다. 필자가 찾은 예문도 郭 선생이 든 용례 밖에 없다. 필자가 보기에 단순히 이 용례는 “以”자 뒤에 빈어 “灋”를 생략한 형식이고, 문장 전체는 “以灋往南”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상고한어에서 “南”자는 “남쪽으로 간다.”의 의미가 있다. 《周礼·地官·大司徒》의 “日南, 则景短多暑(해가 남쪽으로 가면, 햇빛은 짧아지고 더위는 심해지네).”와 《诗经·小雅·信南山》의 “我疆我理, 南东其亩(경계 잡고 다스리어, 남북 동서로 이랑이 뻗었네)”에서의 “南”자가 모두 동사이다. 둘째, 이 铭文 뒤에는 “以陟, 二封, 至于邊柳”의 내용이 나온다. 《尔雅·释詁》는 “陟, 陞也.”라고 했는데, 즉 “두 발을 위로 향해 산을 오른다.”는 의미로 동사이다. 이 문장은 앞 문장과 대응하는 것으로, “南”자가 동사임을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예문의 “以南”은 “以”자 뒤에 빈어가 생략되어 뒤쪽 동사와 연용된 형식이라고 본다. 이른바 “以”뒤에 방위사 빈어를 수반하는 용법은 이들 원래 동사와 명사를 겸용(兼用)할 수 있는 단어들이 동사의 용법을 점차 잃어버린 후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21. 受令册, 佩以出, 返纳瑾璋。 西晚 《颂鼎》

책명을 받아 갖고 조정을 나왔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임금에게 옥으로 만든 홀을 받쳤다.

예문20의 “勿庸”은 “쓰지 말라”라는 의미이고, 뒤에는 빈어를 수반하지 않았다. 상·하문에 근거하면, “勿庸”의 빈어는 어떤 사건을 어떤 판결하는 방식이고, “以次汝封”의 “以”자 뒤에도 빈어를 생략했다. 이 빈어가 바로 “勿庸” 뒤에 수반되지 않는 그 빈어이다. 전체 문장의 대략적인 의미는 이렇다: 사건을 판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지, 封 너 개인의 사사로운 마음을 따라서는 안 된다. “以”의 빈어는 앞의 문장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예문21 “佩”의 빈어는 앞에 나온 “令册”이고, “以”자 뒤에는 빈어가 없다. 문장의 의미에 근거하면, “以”자의 빈어는 “佩册令”이 되어야 한다. “佩以出”은 “책령을 갖는” 방식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이 두 예문에서 “以”자 앞의 내용은 모두 “以”자의 빈어로 볼 수 없고, 상·하문을 통해서 문장의 의미상에 감춰진 빈어를 채워 넣을 수 있다. 이 두 예문에서 “以”자의 虚化 정도는 앞의 세 용례보다 높다.

(2) “……, 以+V+O” 구문의 출현과 발전

“……, 以+V+O” 구문의 상당수 예문들은 앞의 단문에 따라 “以”자의 빈어를 채워 넣을 수 있어 이 문형이 “以+빈어+V+O”의 변형 형식임을 알 수 있다.上古 한어에는 다음과 같은 언어현상이 있다: 두 개의 동사가 연이어 나올 때 앞의 동사가 구체적 동작을 나타내는 행위 동사가 아니라면, 이 동사가 수반하는 빈어는 왕왕 앞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이 두 동사가 각각 빈어를 수반한 구문을 “V1O1V2O2”로 표기한다면, 앞쪽을 받아 빈어를 생략한 구문이 바로 “…O1…, V1V2O2”이다. 이런 표현 형식은上古 한어에서 아주 많이 보인다.¹⁴⁾ 예를 들면:

14)上古 한어에는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동사가 하나의 공통된 빈어를 가지는 “多动共宾”의 언어현상이 있다. 그 구문은 보통 “V1V2O”로 귀납된다. 이곳의

22. 予惟以尔庶邦于伐殷逋播臣。 《尚书·大诰》
 짐은 그대들 제후들을 이끌고 저 반란을 일으킨 은나라의 도당을 정벌 하러갈 것이오.
23. 肇牵车牛, 远服贾, 用孝养厥父母。 《尚书·酒诰》
 농사일이 끝나면 수레와 소를 끌고, 외지로 나가 장사를 하여, 그대들 의 부모들을 정성스럽게 봉양하시오.
24. 乃命宁予以秬鬯二卣, 曰……。 《尚书·洛诰》
 사자에게 명해 나를 위문하게 하시고 아울러 검은 기장으로 빛은 술 두병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말했다: …….
25. 唯周公于征伐东夷。 西早 《井鼎》
 주공은 동쪽 이민족을 정벌하러 갔다.
26. 穆王在镐京, 呼渔于大池。 西中 《通簋》
 목왕은 호경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큰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도록 했다.
27. 王渔于□池, 乎井从渔。 西早 《井鼎》
 임금은 □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임금은 정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을 수행해 물고기를 잡도록 했다.

앞 세 예문은 《尚书》에 나오고, 뒤의 세 예문은 金文에 보인다. 예문에 나온 “于”·“用”·“命”·“呼”·“从” 등의 글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西周 혹은 西周 이전에 모두 동사로, 구체적 동작을 나타낸다. 西周 이후에는 虚化되어 구체적 동작을 더 이상 나타내지 않는다. 이런 虚化된 동사들은 모두 앞쪽을 받아 빈어를 생략할 수 있고 뒤쪽 동사와 곧바로 이

V1과 V2는 두 개의 행위동사로, 두 개의 구체적 동작을 나타낸다. 본문에서 말하는 “V1O1V2O2”와 앞쪽을 받아 빈어를 생략한 “…O1…; V1V2O2” 구문의 V1은 비행위동사를 가리킨다. “多动共宾”의 “V1V2O” 구문과 본문의 “…O1…; V1V2O2” 구문은 다르다.

이외에 두 개의 행위동사가 연이어 사용될 때 앞쪽이나 뒤쪽의 동사도 빈어를 수반하지 않는 현상이 있다. 이것은 표현상에 이 빈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비행위동사가 앞의 생략된 빈어를 받는 것과는 다르다. 두 개의 행위동사가 연이어 사용될 때, 앞의 동사는 앞에 생략된 빈어를 받아 뒤의 동사와 직접 연이어 사용되는 현상은 대략 六朝 이후가 되어서야 출현한다.

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 방식은 春秋战国 이후에도 계속 사용된다.
예로:

28. 勿与乘, 吾将杀之。《左传·昭公二十年》
그와 함께 수레를 타지 마시오, 나는 그를 죽일 것이오.
29. 请京, 使居之, 谓之京城大叔。《左传·隐公元年》
姜氏가 公叔段을 대신해 京 땅에 봉해줄 것을 청하자 (莊公은) 共叔段
을 그곳에 살도록 하고 그를 “京城大叔”으로 불렀다.

때문에 “...O1..., V1V2O2”의 변화 경로를 아래와 같이 귀납할 수 있다:

V1O1V2O2 구문에서 V1이 虚化됨.
↓
V1 뒤쪽에서 생략된 빈어를 받아
“...O1..., V1V2O2” 구문이 만들어짐.
↓
V1이 더욱 虚化되어 원래의 빈어가 더 이상 출현하지 않아
“....., V1V2O2”구문이 만들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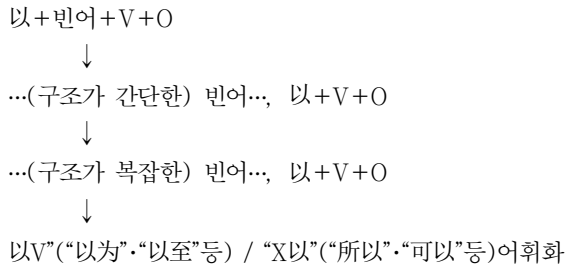
西周 한어에 나타나는 “....., 以+V+O”도 이런 표현 형식이다.

처음으로 “....., 以+V+O” 구문을 사용할 때는 “以”자의 빈어를 생략하지 않았다. 앞쪽 단문에 이미 나타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뒤쪽 단문에서 “以+V+O” 형식을 사용했다. 이때 “以”자 뒤에 빈어를 채워 넣을 수 있다. 이 표현 방식이 점차 받아들여진 후에 “....., 以+V+O”로 더 복잡한 내용들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以”자 앞의 술빈구조나 단문은 전체적으로 “以”자의 빈어로 볼 수 있다. “以”자의 빈어는 반드시 명사성 성분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빈어는 의미상의 빈어에 불과하지 “以”자의 실질적 빈어는 아니다. “以”자는 이 위치에서 접속사로 虚化되었다. 王力은 “(‘以’

자가) 생략한 것은 대명사 ‘之’자나 ‘此’자일 것이다. 그러나 이곳의 ‘생략’은 분석의 편리를 위해 말한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대명사 빈어를 아예 넣을 수 없는 곳이 아주 많다.”라고 했다¹⁵⁾. 金文을 보면, 대명사 빈어를 채워 넣을 수 없는 이런 용법은 西周 중기 이후에 나타난다. 게다가 西周 말기의 銘文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를 보면, “之”·“此”를 채워 넣을 수 없는 표현 방식은 “以”자가 실사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承接關係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虛化된 후에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以”자 뒤에 빈어를 생략하여 “以”자의 虛化를 가속화 했다. 그 예의 하나가 어휘화(词汇化)이다. 후대의 “以为”·“以至”와 “足以”·“所以”를 비롯한 “何以”·“是以” 등은 모두 “……, 以+V+O”의 바탕에서 이루어졌다.

“……, 以+V+O” 구문의 형성과 발전과정은 아래 도표 같다:



3. “V+(O)+以+빈어” 구문

《尚书》에는 동사 V 뒤에 빈어 O를 생략하는 용법이 몇 차례 나온다.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 구문을 “V+(O)+以+빈어”로 표기한다. 이 구문은 《尚书》와 金文에 큰 차이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 보자: 첫째, 西周에는 “V+(O)+以+빈어” 구문이 존재하였는가? 둘째, “V+(O)+以+빈어” 구문에서 “以+빈어”가 후치(后置)된 개사구조

15) 王力, 《汉语史稿》, 中华书局, 1996, 458쪽.

가 된 것은 언제였는가?

(1) 西周의 “V+(O)+以+빈어”

“V+(O)+以+빈어” 구문의 용례는 앞의 두 문형보다 적다. 《尚书》에는 5차례의 용례가 보인다. 이중 3차례의 용례는 <吕刑>에서 나오고, 나머지 2차례의 용례는 <洛诰>와 <多方>에 보인다. 아래에서 세 개의 예문을 들어 본다:

- 30. 乃命宁予以秬鬯二卣, 曰……. 《尚书·洛诰》
사자에게 명해 나를 위문하게 하시고 아울러 검은 기장으로 빛은 술 두병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말했다: …….
- 31. 天惟求尔多方, 大动以威, 开厥顾天. 《尚书·多方》
하늘은 그대들 제후들에게 똑같이 요구했소, 이에 재앙을 내려, 그대들이 하늘의 뜻을 깨닫도록 하려 했소.
- 32. 苗民弗用灵, 制以刑, 惟作五虐之刑曰法. 《尚书·吕刑》
苗나라 군주가 선정을 행하지 않고, 가혹한 벌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다섯 가지 가혹한 형벌을 만들어 “法”이라고 하였소.

《尚书》의 각 판본들에는 이 세 용례와 나머지 두 예문의 끊어 읽기가 일치하는데 이로 보면 학자들이 “以+빈어”를 후치한 구조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西周 金文의 구문은 《尚书》와 다르다. 설명의 편리를 위해 이 구문에 놓고 논지를 전개한다. 보통 “以+빈어”를 후치의 개사구조로 보는 학자들은 그 예로 아래 예문을 자주 언급한다.

- 33. 王令东宫追以六师之年. 西中 《~~陵~~贮簋》
- 34. 余献妇氏以壶告曰: 以君氏令曰: 余老止. 西晚 《五年琯生簋》

먼저 예문34를 보자. 학자들은 2006년에 출토된 《五年琯生尊》铭文은 《五年琯生簋》와 관계가 있다고 여긴다.¹⁶⁾ 《琯生尊》에는 아래의 내용

이 있다: “召姜以琯生~~五~~、壺兩, 以君氏命曰: “余老止”. 그 대략적인 의미는 이렇다: “召姜는 琯生에게 다섯 개의 수건과 두 개의 주전자를 고르고 君氏의 명령을 전달하며 ‘나는 늙었으니 물러나야겠네.’라고 말했다.” 이 铭文은 예문34에 기록한 내용과 대응하는데, 같은 사건을 말한다. 《琯生簋》의 “余”·“妇氏”는 각각 《琯生尊》의 “琯生”·“召姜”에 대응한다. 《琯生尊》에서 “以君氏命曰”의 주어는 “召姜”이기 때문에 《琯生簋》의 “告曰”의 주어도 “妇氏”가 되어야 한다. 이로 보면, 예문34는 “余献妇氏以壺, 告曰(내가 妇氏에게 주전자 하나를 주면서 그녀에게 알렸다)”이 아닌 “余献, 妇氏以壺, 告曰(내가 예를 올려 만나니, 妇氏가 나에게 주전자 하나를 주고 아울러 君氏의 명령을 전하면서 말했다)”로 끊어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대 학자들은 예문34의 문장을 잘못 끊어 읽었기 때문에 이 용례는 “以”자 구조가 후치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以”자도 개사로 볼 수 없다.

Redouane Djamouri도 후치한 “以+빈어”를 하나의 개사 구조로 보았다. 게다가 후치된 “以+빈어”는 앞쪽 동사의 直接宾语가 될 수 있다고 여겼다. 그가 들은 예문 중의 하나가 본문 예문34이다. 다른 예문은 아래와 같다:

35. 武王則令周公舍寓以五十頌處。 西中 《~~寶~~鐘》

Redouane는 “이에 武王은 周公에게 寓라는 사람에게 오십 채의 집이 있는 집단거주지를 공급하라고 명령했다.”로 번역했다. 여기서 그는 “寓”를 사람 이름으로 보았다.¹⁷⁾ 예문35 앞에는 “微史烈祖乃來見武王(微史烈

16) 徐义华, <新出土“五年琯生尊”与琯生器铭试析>, 《中国社科院历史研究所先秦史研究室》, www.xianqin.org. 陈英杰, <新出琯生尊补释>, 《考古与文物》, 2007年 第5期. 罗卫东, <读“五年琯生尊”铭文札记>, 《北京师范大学学报》, 2008年 第3期.

17) 罗端(Redouane Djamouri), <从甲骨、金文看“以”字语法化的过程>, 《中国语文》, 2009年 第1期.

祖가 武王을 보라왔다)”라는 铭文이 있다, 이로 보면, 武王을 보러온 사람이 微史烈祖이고, 武王이 周公에게 거주한 곳을 마련해주라고 한 사람도 微史烈祖여서 “寓”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寓”는 여기서 “寓所”·“住处”를 나타낸다. “以五十頌處”를 “숨”의 直接宾语로 본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

武振玉은 예문35에 대해 또 다른 견해를 제기했다. 그는 “五十頌處”는 개사 “以”자 끌어들이는 처소이며, “以五十頌處”는 하나의 후치된 개사 구조라고 여겼다¹⁸⁾. 이 견해도 성립하기 어렵다. 金文의 “處”자는 대부분 동사로 쓰여, “居住”의 뜻을 나타낸다. 그 예로 “弋當俾處厥邑, 田厥田(그로 하여금 그 마을에서 살며, 그 밭을 경작하게 한다).”와 같은 문장이 있다. “五十頌處”를 명사구로 본다면, 그 뜻은 “五十頌이라는 곳”의 의미가 되는데, 이런 용법을 가진 “處”자는 西周시기에 보이지 않는다. 裘锡圭는 “以五十頌處”는 “오십 가지의 위의를 주관하다(掌管五十种威仪)”는 의미라고 하면서, “處”자를 “掌管”를 나타내는 동사로 보았다.¹⁹⁾ 刘翔은 “五十頌”은 “殷나라 사람들이 점친 점괘풀이”를 가리킨다고 여겼다. 微史烈祖가 “殷나라 사람이 점친 점괘풀이”를 武王에게 올리자 武王은 이에 근거해 周公에게 주나라에 미사 일가가 살 수 있도록 안배할 것을 명했다. “以五十頌處”는 “(微史烈祖)가 ‘五十頌’로 周나라에 살게” 된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도 “處”자를 동사로 보았다.²⁰⁾ 두 선생의 “處”에 대한 해석은 다르지만 “處”자를 동사로 보는 것은 일리가 있다.

종합하면, 필자는 전체 문장을 “武王則令周公舍寓, 以五十頌處”(武王은 周公에게 微史烈祖가 살 곳을 안배하도록 명했고, ‘五十頌’에 근거해 살게 되었다)로 끊어 읽어야 하며, 이때 “以”자는 후치된 개사로 볼 수 없다고 여긴다.

계속해서 아래 두 예문이 “以”자 구조의 후치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자:

18) 武振玉, <金文“以”字用法初探>, 《北方论丛》, 2005年 第3期.

19) 裘锡圭, <史墙盘铭解释>, 《文物》, 1978年 第3期.

20) 刘翔, <“以五十頌處”解释(读金文札记)>, 《学习与思考》, 1982年 第1期.

36. 今我唯令女二人亢眾矢，爽左右于乃寮以乃友事。 西早 《矢令方尊》
 지금 亢과 矢 두 사람에게 그대들의 동료를 돕고 그대들의 동료와 함께 일을 주관할 것을 명한다.
37. 易女并寓_𠄎田于_𠄎，以厥臣妾。 西晚 《大克鼎》
 그대에게 _𠄎 땅에 있는 형가의 _𠄎 밭과 이 밭에 있는 노예들을 하사한다.

통사적 구조 형식에서 봤을 때, “以+빈어”도 다른 동사 뒤쪽에 쓰인다. 전형적인 “V+(O)+以+빈어”와 다른 점은 “以”자 앞쪽에 “于”자나 “于”자 구조가 따로 있다는 점이다. 武振玉은 이 두 예문의 “以”자는 접속사로, “和”·“与”의 의미라고 여겼다.

예문36의 “于”자 뒤쪽은 “乃寮”와 “以乃友事”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以”자를 “和”나 “与”의 의미로 풀이하면, “乃寮以乃友事”는 앞쪽 “于”자의 공동의 人物 빈어가 되기 때문에 “乃寮”와 “乃友事”는 두 개의 并列关系에 있는 명사성 성분으로 봐야한다. “乃寮”의 경우는 확실히 “당신들의 동료”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友事”를 하나의 단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서주 金文에서 “友”자는 보통 단독으로 쓰이거나 앞에 수식어를 수반하여 “친구”나 “동료”를 나타낸다. 예로:

38. 遘于四方，_𠄎王大祀，_𠄎友于周，在二月既望。 西早 《召卣》
39. 率以乃友于吾王身。 西晚 《師匜簋》
40. 遣小子_𠄎以其友作_𠄎男、王姬_𠄎彝。 西晚 《遣小子_𠄎簋》
41. 诸友饮飮具饱，弭仲界壽。 西晚 《弭仲簋》

“事”는 金文에서 관직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데, “內事”(《趵鼎》)와 같은 예문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섬기다(事奉)”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는데, “王使小臣守事于夷(임금이 小臣 守 에게 동쪽의 이민족을 섬기도록 했다.”(《小臣守簋》)와 같은 예문이 여기에 속한다. 필자는 台湾中研院史语

所의 《资料库》를 검색하면서 예문36의 경우처럼 “友”와 “事”를 연이어 사용한 铭文을 찾지 못했다. 때문에 필자는 “友事”를 “同事”와 유사한 명사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春秋 초기의 《秦公钟》에는 “以虢事蠻方”라는 铭文이 있다. 대략적인 의미는 “남쪽의 이민족들을 공손하게 조심해서 섬긴다.” 내지 “공손하고 조심스런 방법으로 남쪽의 이민족들을 섬긴다.”이다. 이 문장의 구조는 “以乃友事”와 비슷하다. 두 예문의 “事”는 모두 동사로, “섬기다”·“주관하다”의 뜻이다. 필자는 “以乃友事”는 “그대의 동료를 동반하여 주관하다”라는 의미로, “爽左右于乃寮”와 并列关系를 갖는 하나의 단문이라고 본다. 이때의 “以”는 “偕同”의 의미로, “以乃友事”는 여전히 “以”자 구조가 전치된 용법이다.

예문37의 “馭”는 어떤 곳을 나타내고 “臣妾”은 “노복(奴仆)”의 뜻이다. 이는 두 개의 성질이 다른 명사여서 “以”자가 “馭”와 “臣妾”을 연결할 수 없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以厥臣妾”은 앞 문장 “易女并寓_鬲田于馭”의 내용을 보충한다. 여기서의 “以”자는 현대한어의 “与”·“以及”의 의미에 해당하나 접속사로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以厥臣妾”의 “以”자에는 “偕同”이나 “连同”의 의미가 있어 “동사가 빈어를 수반하는” 형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의 “以”자를 접속사로 본다면 접속사로 허하된 경로를 설명하기 어렵다. 둘째, 현대한어의 접속사 “与”·“以及”도 동사에서 변해 나왔다. 서주시기의 “以”는 근·현대한어의 “与”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접속사로만 봐서는 안 된다. 필자는 이 예문의 “以”자는 동사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문37와 비슷한 것은 西周중기의 《季姬方尊》의 铭文도 있다:

42. 賜厥田以生馬十又五匹、牛六十又九_鬲、羊三百又八十又五_鬲、禾二。
 그대에게 그 밭과 살아있는 말 15필·소 19두·양 385마리에 창고 두 개 분량의 벼를 하사한다.

통사적 구조 형식으로 봤을 때, 이 예문은 “V+O+以+빈어” 구문과 같고, “以+빈어”는 개사구조의 후치형식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문법적 기능으로 봤을 때, “以”자가 다른 개사나 후대의 “以”자 구조에 후치할 때와 같은 소개(引介)의 기능이 없다. 예문42은 예문37과 비슷하여 “以生馬十又五匹……”이 앞의 문장을 보충한다. 마찬가지로 “以+빈어”의 “以”자가 서주시기에 접속사로 虛化된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해본다면 여기의 “以”자도 접속사로 볼 수 없고 동사로만 볼 수 있다.

필자는 “以+빈어”가 어떤 단문 뒤에 쓰여 앞 문장을 보충하는 용법은西周시기 “以”자의 용법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以”자 의미의 虛化 경로를 보면, 이때 “以”자는 여전히 “偕同”이나 “連同”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통사적 관계로 봤을 때, 예문37과 예문42의 “以+빈어”는 앞쪽 동사와 부착 관계에 있지 않다. 앞의 동사와 그 빈어를 떼어 내어도 “以”와 그 뒤에 수반된 빈어는 여전히 독립적으로 문장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두 예문은 후치한 “以”자 구조로 볼 수 없다. 이곳의 “以”자는 동사의 범주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예문33을 분석해보자. 이 예문은 “东宮追以六师”이든 “东宮追, 以六师”이든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위의 분석을 근거로 필자는 “东宮追, 以六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긴다. 西周말기의 《小克鼎》에는 아래와 같은 銘文이 있다:

43. 王命膳夫克舍令于成周通正八师之年。

周왕이 膳夫克에게 成周 洛陽에서 명령을 발포하게 하고 八師를 정돈하게 한 그 해.

이 예문과 예문33의 공통점은 “之年” 앞의 내용이 모두 한정어라는 점이다. 이 銘文의 “通正八师”는 앞의 “膳夫克舍令于成周”와 확실히 한 문장이 아니어서 “通正八师” 앞쪽은 끊어 읽어야 한다. 이것은 西周 한어에서 한정어는 몇 개의 단문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예문33의

“王令东宫追以六师之年”은 “王令东宫追, 以六师之年”으로 끊어 읽어도 문장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西周시기의 “以+빈어”에는 후대의 후치된 개사 구조의 용법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西周시기에 나타난 용법은 “V+(O), 以+빈어”가 되어야 한다. “以+빈어”가 다른 술빈구조 뒤에 오는 경우는 하나의 상대적으로 독립된 단문이다.

(2) 后置된 “以+빈어”의 출현과 발전

郭錫良이 연구한 殷代 甲骨文에 따르면, 殷代의 “以+빈어”는 다른 동사나 술빈구조 뒤쪽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로 “王其田, 以万, 弗悔, 吉? / 以万, 吉?”(小屯南, 2256) 같은 문장이 있다. 郭 선생은 예문 중의 “以”자는 “帶領” 내지 “進獻”의 의미로 보고, 殷代에도 동사로 쓰인 것으로 판단했다. 동사의 虛化 과정으로 봤을 때, 郭 선생의 이 견해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以+빈어”는 殷代에 하나의 독립된 단문이었을 것이다.

西周시기 “以+빈어”는 앞의 예문34-37과 예문42의 경우처럼 어떤 동사성 성분 뒤쪽에 오는데 모두 殷代에 전래된 용법이다. 앞 문장에서 이 몇 가지 예문들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以+빈어”는 단문만 될 수 있지 후치된 개사 구조가 아님을 증명했다. 이밖에 春秋시기의 《论语》의 일부 다른 술빈구조 뒤에 오는 “以+빈어”도 단문으로 봐야한다. 예를 들면:

44. 事之以礼。 《论语·为政》

예로써 섬긴다.

45. 动之不以礼。 《论语·卫灵公》

백성을 부리는데 예로써 하지 않는다.

46. 说之不以道, 不说也……说之虽不以道, 说也。 《论语·子路》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써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쁘게 하는데 비록 도로써 하지 않아도 된다.

47. 桓公九合诸侯, 不以兵车。 《论语·宪问》

환공이 제후를 규합하는데 병거(무기)를 쓰지 않았다.

예문44의 “以礼”는 늘 후치된 개사구조로 본다. 예문45는 예문44와 유사하나 “以礼” 앞에 부정사 “不”이 있다는 점만 다르다. 이때 “不以礼”는 후치된 개사구조로 보기 어렵다. 통사적 구조형식으로 봤을 때, “动之”와 “不以礼”는 두 개의 의미관계를 가진 단문이다. 여기의 “以”는 동사에 불과하다. 예문46의 뒤 부분에 나오는 “不以道” 앞에는 转折关系를 나타내는 “虽”가 또 있어 “以道”를 후치된 개사구조로 보기가 더욱 어렵다. 이곳의 “以”도 동사에 불과하다. 이것은 다른 동사나 술빈구조 뒤쪽에 오는 “以+빈어”에서 “以”자는 春秋시기에도 동사의 용법을 갖고 있었음을 말한다. 이 용법은 西周시기에 유래했을 것이다.

필자는 西周한어에서 “以+빈어”가 어떤 동사나 술빈구조의 뒤쪽에 올 때 “以+빈어”와 이 동사 혹은 술빈구조 사이는 여전히 문장을 끊어 읽어야 하고, “以”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술어가 될 수 있는 동사라고 생각한다. 春秋战国시기 “以+빈어”는 이 위치에서 점차 고정되어 후대의 후치된 개사구조가 되었다.

Ⅲ. 결론

“以”자는 西周 한어에서 대략 네 가지 용법이 있다. 첫째가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술어가 되는 것이다. 이때 “以”는 “凭借”나 “用”의 의미를 나타낸다. “凭借”나 “用”의 의미는 “率领”의 의미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나머지 세 용법은 모두 다른 동사와 이어져 사용되는 것이다. 이중에 첫 번째 용법은 “以”와 수반되는 빈어는 또 다른 동빈구조 앞에 오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를 “以+빈어+V+O”로 표기했다. “以”는 이 위치에서 “率领”의 의미에서 “偕同”의 의미와 “凭借”의 의미를 파생시켰고, “偕同”의

의미를 기초로 후대의 “和”와 “與”의 의미를 파생시켰으며, “凭借”의 의미를 기초로 “用”의 의미·“把”의 의미·“困”의 의미 등을 파생시켰다. 두 번째 용법은 “....., 以+V+O”인데, 이때 “以”는 생략된 빈어를 받는 형식이다. 후대의 “可以”·“所以”·“以至” 등의 단어들이 이 구문에서 나왔다. 세 번째 용법은 “V+O+以+빈어”이다. 이 구문은 西周시기에는 “V+O, 以+빈어” 형식이었을 것이다. “以”자가 다른 동사나 술빈구조 뒤에 있을 때는 西周시기에는 여전히 독립된 문장이었다. 春秋战国시기에 와서 점차 “以+빈어”를 개사구조의 후치가 되는 “V+O+以+빈어” 용법이 나타났다. “以”가 후치된 개사가 된 것은 늦어도 春秋战国시기일 것이다.

<References>

1. Chen Mengjia, *Western Zhou Bronzes Periodization*, Zhonghua Book Company, 2004.
2. Chen Yingjie, “Explanation of Diaosheng Zun”, *Archaeology and Cultural Relics*, 2007. Vol.5.
3. Cui Yongdong, *Function Words of Western Zhou JINWEN*, Zhonghua Book Company, 1994.
4. Gu Jigang·Liu Qiyu, *Shangshu Proofreading and Interpretation*, Zhonghua Book Company, 2005.
5. Guo Xiliang,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以’”, *Research In Ancient Chinese Language*, 1998. Vol.1.
6. Liu Xiang, “Explanation of Yi Wushi Song Chu”, *Xuexi yu Sikao*, 1982. Vol.1.
7. Luo Weidong, “Reading notes of MING WEN on Wunian Diaosheng Zun”, *Journal of Beijing Normal University*, 2008. Vol.3.

8. Qian Zongwu, *Grammar Research of Jinwen Shangshu*, The Commercial Press, 2004.
9. Qiu Xigui, "About '以'", *Collected Papers on Palaeography*, Zhonghua Book Company, 1992.
10. Qiu Xigui, "Explanation of MING WEN on Shiqiang Pan", *Cultural Relics*, 1978. Vol.3.
11. Redouane Djamouri, "The grammaticalization of '以' in oracle and bronze inscriptions", *Studies of The Chinese Language*, 2009. Vol.1.
12. Wangli, *Manuscript of Ancient Chinese Language*, Zhonghua Book Company, 1996.
13. Wu Zhenyu, "A Brief Discuss of the Function of '以' in JIN WEN", *The Northern Forum*, 2005. Vol.3.
14. Xia Chuancai, *Thirteen Classics Introduction*, Tianjin Peoples Publishing House, 1998.
15. Xu Yihua, "A Brief Discuss of MING WEN on Wunian Diaosheng Zun", *Xianqin History Department of China History Research Institute of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www.xianqin.org.
16. Yang Bojun, *Annotation of Analects*, Zhonghua Book Company, 1998.
17. Yang Bojun, *Annotation of Mengzi*, Zhonghua Book Company, 1992.
18. Yang Shuda, *Jiweiju JINWEN Shuo*, Shanghai Ancient Books Press, 2013.
19. Zeng Yunqian, *Shangshu Zheng Du*,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Press, 2011.
20. Zhang Yujin, *Grammar Research of Western Zhou Chinese*, The Commercial Press, 2004.

21. Zhou Bingjun, *Shangshu Yi Jie*,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Press, 2010.

<참고문헌>

1. 陈梦家, 《西周铜器断代》, 中华书局, 2004.
2. 陈英杰, <新出琯生尊补释>, 《考古与文物》, 2007年 第5期.
3. 崔永东, 《西周金文虚词集释》, 中华书局, 1994.
4. 顾颉刚·刘起釪, 《尚书校释译论》, 中华书局, 2005.
5. 郭锡良, <介词“以”的起源和发展>, 《古汉语研究》, 1998年 第1期.
6. 刘翔, <“以五十颂处”解释(读金文札记)>, 《学习与思考》, 1982年 第1期.
7. 罗卫东, <读“五年琯生尊”铭文札记>, 《北京师范大学学报》, 2008年 第3期.
8. 钱宗武, 《今文尚书语法研究》, 商务印书馆, 2004.
9. 裘锡圭, <说“以”>, 《古文字论集》, 中华书局, 1992.
10. 裘锡圭, <史墙盘铭解释>, 《文物》, 1978年 第3期.
11. 罗端(Redouane Djamouri), <从甲骨、金文看“以”字语法化的过程>, 《中国语文》, 2009年 第1期.
12. 王力, 《汉语史稿》, 中华书局, 1996.
13. 武振玉, <金文“以”字用法初探>, 《北方论丛》, 2005年 第3期.
14. 夏传才, 《十三经概论》, 天津人民出版社, 1998.
15. 徐义华, 《新出土<五年琯生尊>与琯生器铭试析》, 载“中国社科院历史研究所先秦史研究室”网站.
16. 杨伯峻, 《论语译注》, 中华书局, 1998.
17. 杨伯峻, 《孟子译释》, 中华书局, 1992.
18. 杨树达, 《积微居金文说》, 上海古籍出版社, 2013.

19. 曾乾运, 《尚书正读》, 华东师范大学出版社, 2011.
20. 张玉金, 《西周汉语语法研究》, 商务印书馆, 2004.
21. 周秉钧, 《尚书易解》, 华东师范大学出版社, 2010.

<Abstract>

There are roughly four usages for “以” the word in Western Zhou Chinese. First it alone can be used as a predicate in a sentence. In this structure it means “depending” or “using”. The meaning of “depending” or “using” are derived from “leading to”. Another three usages are “以” the word plus other verbs. One is that “以” the word plus object is located before the other verb-object structure. In this essay we refer to as “以+object+V+O” structure. In this structure, the meaning of “以” of “leading to” is extended to “accompanied by” and “depending on”. Later “accompanied to” is extended to “and” and “with”. “depending on” is extended to “using”, “holding”, and “in order to”. Another usage is “..., 以+V+O”. This is in the format of brought forward omitted object. Later “可以”, “所以”, “以至”, and other words are all formed in this kind of structure. The third usage is “V+O+以+object”. This structure should be “V+O, 以+object” in Western Zhou Chinese. When “以” is after another verb or verb-object structure, it is still an independent clause in Western Zhou Chinese. It is until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when the structure of “V+O+以+object” was gradually being used. In this structure “以+object” can be viewed as preposition phrase post. In other words, it is at least until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when “以” became a postpositive preposition.

Key Words : 상서(Shang Shu), 금문(Bronze Inscriptions), “以”자문
(Sentence of “以”), 서주한어(Western Zhou Chinese),
허화(grammaticalization), 인신(be extended to)

